

천천히 흐르는 초록의 속삭임, 굴포천과 함께한 그린 라이프

글. 공지선

일상 속 동화 같은 순간은 조용히 다가온다. 약 한 달간의 간격을 두고 9월 7일과 10월 12일 두 차례 열린 <2024 굴포천천히 그린 라이프 페스티벌>은 그런 순간들을 모아놓은 듯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버드나무의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였고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벼이 흘날랐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의 변화가 천천히 걷는 발걸음마다 스며드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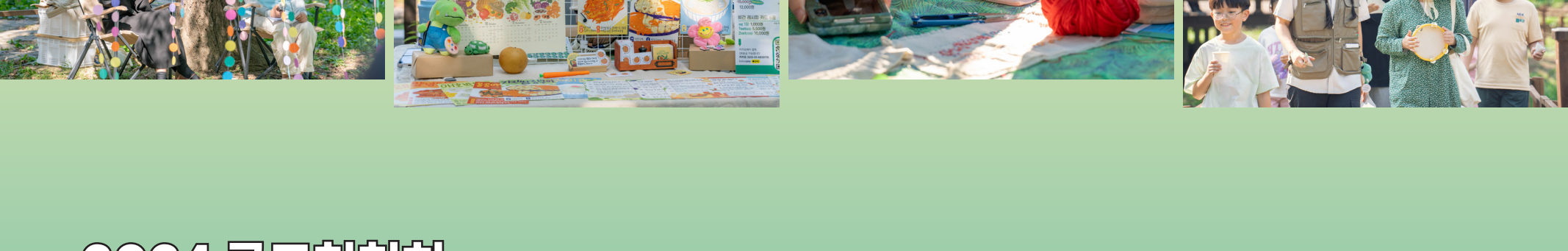
굴포천은 부평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맹꽁이, 왜가리, 백로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적 보고다. 과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한때 오염되었던 굴포천이지만 지금은 부평시와 시민들의 꾸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그 맑은 물길을 되찾았다. 이제 굴포천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생태적 기억이자, 삶과 자연이 다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인 것이다.

<2024 굴포천천히 그린 라이프 페스티벌>은 2022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환경 페스티벌로, 올해는 'ME, EARTH, HARMONY'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ME, EARTH, HARMONY'

지구를 위한 끝말잇기



2024 굴포천천히 GREEN LIFE FESTIVAL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굴포천을 따라 이어졌으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를 비롯한 환경캠페인, 그린라이프 마켓 등이 펼쳐졌다. 80여 개 팀이 참여한 그린라이프 마켓에서는 많은 셀러들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재활용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과 더불어 자연을 주제로 한 핸드메이드 제품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구매 시엔 가져온 장바구니를 활용하거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특히 스밈(SMIM: Social, Minimal life, Insight, Multifarious)의 약자로 일상에 스며드는 작은 실천에서부터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ESG 경영 슬로건) 마켓은 그린라이프의 핵심 가치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였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들과 업사이클 상품들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판매된 금액은 전액 기부됐다.



첫날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일러스트레이터 휘리의 라이프드로잉이었다.

굴포천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 이 퍼포먼스는, 환경을 예술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며 축제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다. 10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기획자와 창작자들이 모여 굴포천을 자유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테이블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도 축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열린 아티스트 토크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자리였다. 9월 7일, 정혜운 작가는 '강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라는 주제로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으며 무과수 작가가 진행한 '삶의 디테일'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환경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10월 12일엔 천선란 작가가 'SF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담을까?'란 주제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발언을 이어 가기를 복돋았다. 행사에서 환경 관련 웹툰을 전시 중이었던 구희 작가도 이날 '우리의 실천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주제로 토크를 이어갔다.



다양한 퍼포먼스도 축제를 빛냈다. 굴포천을 무대로 펼쳐진 거리 공연과 미술, 드로잉 쇼는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9월 7일에 열린 인형극 '어느 개구리의 노래'와 광대극 '떠돌이 화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12일에는 친환경 음악극 '미스터 분리수거', 종이컵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 등 환경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들을 선보였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참여형 전시도 진행됐다. 굴포천의 생명이 되어 관객들에게 쓴 편지를 전시한 <굴포로부터>와 지구를 생각하는 말들을 릴레이로 적어 가는 <지구를 위한 끝말잇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알록달록 펜을 들고 자연과 지구를 위한 마음을 새겨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외에도 지역의 독립 서점들이 환경을 주제로 직접 큐레이션 한 책들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가치서점과 업사이클 에코백 만들기, 킨츠키, 탐조 드로잉, 굴포천 요괴 만들기, 생활수선 등 즐길거리도 풍성했다.

◇업사이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일

◇킨츠키: 금으로 수리한다는 뜻으로, 깨지거나 갈라진 도자기의 틈을 붓으로 채우고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는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2024 굴포천천히 그린 라이프 페스티벌>은 가을날 짧게 발화했다 사라지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일상 속 생활모습을 돌아보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였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굴포천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자연이 던지는 작은 메시지들을 마주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전하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흘러가는 물소리 속에서 우리는 지구와 대화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축제는 단순한 한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굴포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보는 건 어떨까.



공지선 (孔知善, GONG JISEON)

시각예술작가 / 문화기획자

인간의 존재와 삶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조종되는지를 설치, 회화, 출판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하고 있다. 또한, 실험문화공간 <파이프행버>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을 진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gulpo.chi

2024 Green Life Festival / 지구를 위한 끝말잇기 ME EARTH HARMONY

2024 굴포천천히
'지구를 위한 끝말잇기 ME, EARTH, HARMONY' 라는
슬로건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축제입니다.
자연과 삶이 어우러지는 굴포천!